제 172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미디어매체를 통한 “루츠”감각의 환기와 에스니시티의 재구성: 2000년 이후의 재일한국/조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강연자: 김지영 (金 知榮)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김지영 교수의 세미나가 5월 27일 국제대학원 107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미디어매체를 통한 “루츠”감각의 환기와 에스니시티의 재구성: 2000년 이후의 재일한국/조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본 강연의 내용은 김지영 교수의 박사학위를 위한 논문주제로 재일한국/조선인의 한국과 일본간의 이동을 경험한 주체와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루츠(뿌리)”라는 것이 이들의 행위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정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으로 1980년대 이후의 일본 사회 안에서의 재일한국/조선인을 분석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는 점점 국제화로 변해가고, 2000년 이후의 한류 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생긴 것과 동시에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보도로 조국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지영 교수는 “보는”행위와 한류평가와의 관계를 주목하기 위해 2008년에 재일한국/조선인의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접촉에 관한 조사를 행했다. 조사는 눈덩이표집을 이용하였으며, 291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23표를 회수하였다. 먼저, 조사 결과 한류붐의 시기와 조사시점의 접촉 빈도 차이를 보면 빈도의 등간 변수화가 2003년 평균 3.98이었으나 2008년에는 평균 4.70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접촉증가형(2003년에는 저접촉이었으나 2008년에는 고접촉으로 변한 유형), 고접촉안정형(2003년과 2008년 둘 다 고접촉을 유지한 유형), 접촉저하형(2003년에는 고접촉이었으나 2008년에는 저접촉으로 변한 유형), 그리고 저접촉정체형(2003년과 2008년 둘 다 저접촉을 유지한 유형)으로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접촉증가형은 주로 여성과 20대 그리고 재일교포 3세와 4세로 이루어져 있고, 고접촉증가형은 대개 연령대가 높는데, 이들은 한류 이후 한국어공부를 시작하고 한국여행에 다녀온 것뿐만아니라 재일단체에 참가하고 본명을 사용하는 등 재일인으로서의 인식도 변화되었다. 반면, 접촉저하형은 민족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접촉저하형은 남성과 30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경우 한류 이후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로 인해 개인의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납치보도는 재일조선인이란 호칭을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유도하였다.

또한, 김지영 교수는 2012년 재일한국/조선인의 집단호칭을 선택하는 행위와 루츠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 주목하기 위해 호칭에 관한 조사도 행하였다. 이 조사도 눈덩이표집을 이용하였으며 492표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67표를 회수하였다. 조사 질문은 대략 ‘이제까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적이 있는 호칭의 수’와 ‘알고 있는 호칭의 수’로 나뉜다. 조사 결과, 3개의 클래스

터로 나뉘지는데 클러스터1은 알고 있는 호칭의 수와 사용하고 있는 호칭의 수가 많은 경우, 클러스터2는 알고 있는 호칭의 수는 많지만 사용하고 있는 호칭의 수는 적은 경우이며, 마지막 클러스터3은 알고 있는 호칭의 수도 적고 사용하고 있는 호칭의 수도 적은 경우다. 이들의 호칭의 범위는 클러스터1은 재일, 재일코리안, 조선, 한국 등을 사용하고 있고, 클러스터2는 재일, 재일한국인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들의 경우 재일 단체에 참가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호칭 사용의 대상이 주로 일본인이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3은 재일한국인과 한국인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며 미디어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일이라는 말 대신 한국인이라는 호칭을 주로 쓴다.

질의응답

질문: 조사할 때, 회수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조사하면서 지역 간의 차이가 있었나.

답변: 기관에 부탁한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를 아직 잘 모르겠다.

질문: 강연자는 조사를 한류를 매개로 하였는데, 사실 한류는 일본사회 자체에 관심도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호칭에 대한 조사도 재일한국/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호칭에 대한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있는가.

답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호칭의 변화는 강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논문의 뒷부분이 실제로 본인들의 호칭에 대한 변화가 있다.

질문: 한류의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또한 재일한국/조선인 안에서도 대상그룹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답변: 한류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한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일본사회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상그룹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애매모호 하지만 한 그룹을 봤을 때는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유형도 있다.

질문: 재일한국/조선인의 호칭은 무엇을 사용하는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질문지가 크게 3파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강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른 호칭 문제도 포함되어있다.